

의상에 있어서 인체 “부재”의 기호학적 의미 분석

- 작품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semiotic meaning analysis of body “absence” in clothing

박 현 신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전임강사

이 논문은 1997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기호학의 이론적 배경

2-2. 의상에 있어서의 인체 부재의 작품 사례 분석

a. Beverly Semmes의 Watercoat. 1991

b. Ruth Sheuing의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Penelope) II. 1989

c.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 1996

3. 결론

Key words : absence of body in clothing
système semi-symbolique,
male/female, relevant/irrelevant,
simple/various.

논문 개요

의복은 단순한 상징적 체계, 즉 입는다는 기능성에서 벗어나 미학의 한 위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코드로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자, 의상에서 인체의 부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 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1) 입음/걸려짐, 긍정적/부정적, 능동적/수동적, 있음/없음을 통해 남성/여성의 의미를 대립시키고, 2) 사회적인/사적인, 인체/옷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적절함/부적절함, 주체적인/부수적인 의미로 환원시켰다. 3) 하나의/다수의, 단순함/다양함, 제한적인/자유로운 의미를 통해 옷입는 방법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Now, Clothing has new position which is a part of aesthetics and symbolic code.

To investigate this phenomenon, three works which express the meaning with "absence of body" in clothing were analyzed.

In results,

- 1) the confrontation of male/female was represented by positive/negative, active/passive, present/absent.
- 2) male/female means social/private, body/clothing the relevant/the irrelevant, subjective/additive.
- 3) one/numbers, simple/various, limited/ free present the various way of wearing

1. 서론

의복은 우리 내면의 자아가 세상과 만나는 지점이다. 한 사회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갖가지 언어들 - 특히 미술, 건축,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예술 - 은 각기 “사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 즉 실질들은 기호로 대리하여 그 의미작용을 한다.

기호는 표현과 내용, 즉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각 부분들은 대립을 통하여 그 의미들의 관계를 구축하고, 기호학은 의미의 파악과 생성을 분석하여 그들의 주제적 역할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복은 전통적으로 심리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따르며 계층과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단순한 상징적 체계의 역할만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사실, 옷감이 한 형태의 옷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스타일이 되며, 미학의 한 위상을 주장¹⁾ 하며 조형예술의 한 언어로 혹은 의미 전달체계의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상에서 인체를 배제시킴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 Beverly Semmes의 “watercoat 1991”²⁾과 Ruth Scheuing의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Penelope) II, 1989³⁾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1996)⁴⁾을 분석 대상으로 의상에 있어서의 인체 부재의 의미, 인체 부재로 인한 의상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을 근거로 분석, 고찰하였다.

2. 본론

2.1. 기호학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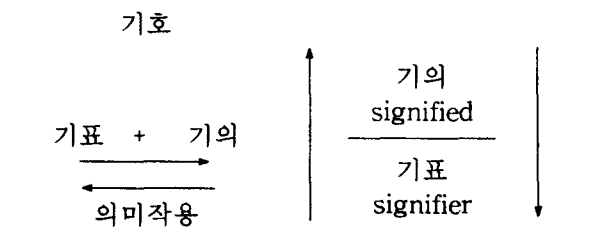
기호는 일상생활안에 무수히 편재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기호들을 통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많은 의미들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있다. 기호학이란 의미 일반에 관한 이론, 즉 의미의 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을 일관된 상위언어(métalangage)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⁵⁾로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⁶⁾ 기호학내지는 기호론이 하나의 독립과학이 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된 것은, 미국의 철학자 퍼어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Collected paper(1931-1935)」에서 기호(sign)내지 기호론(semiotic)의 개념규정과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의 언어기호론과 기호학(sémiologie)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독창적인 구상⁷⁾이었으며, 이들의 이론은 모리스(Charles Morris)와 롤랑바르트(R. Barthes) 등으로 각기 계승되어 발전되었다.

기호학은 스스로 구조적(structural)이며 동시에 생성적인(génératif)인 관점에서 의미를 다루는 이론이며 의미가 대립을 파악하는데서 비롯하며 이에 따라 이 대립을 설명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따라서 언어는 “기호체계”(système de signes)가 아니라 “관계체계”(système de relations)로 구축될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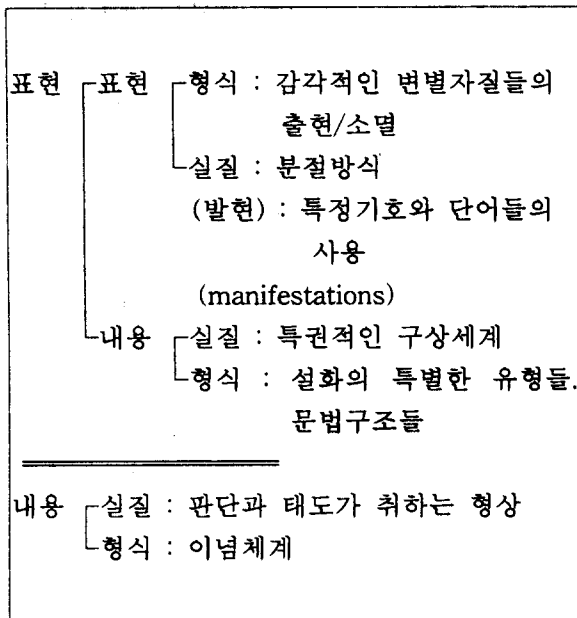
오늘날의 기호학은 “상징적 체계”(système symbolique), “기호적 체계”(système sémiotique)와 “기호-상징적 체계”(système semi-symbolique)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상징적 체계란 표현의 각 요소에 오직 단 하나의 내용 요소가 대응하여 언어의 두면이 일치 관계에 있는 언어로 형식 언어, 신호기, 신호등이 이에 속한다. 기호적 체계는 두면 사이에 일치 관계가 없고 표면과 내용을 구별하여 따로 연구해야 하는 언어이다. 기호-상징적 체계는 시와 여러 가지 조형예술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표현과 내용의 일치 관계가 두면의 고립된 요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면의 범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⁸⁾

기호는 물리적 표현인 기표(signifier), 개념적 측면인 기의(signified), 기호(sign) 자체의 세가지 기본요소로 이루어지며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상호 연상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호학에서의 의미는 감각적 자질이 변별적 차이(écart différentiel)를 통해 선택되고 분절된 면의 “표현면”(plan de L'exepression)과 변별적 차이를 통해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발생하는 “내용면”(plan de conyenu)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표현면에서는 감각적인 재료가, 내용면에서는 관념적인 재료가 분절되어 의미작용을 한다. 형식만이 변별적 차이를 산출하고 이 변별적 차이가 없으면 의미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호학의 목표는 두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전제 관계를^{주10)} 그 형식의 대립(opposition), 즉 차이(differences)를 근거로 연구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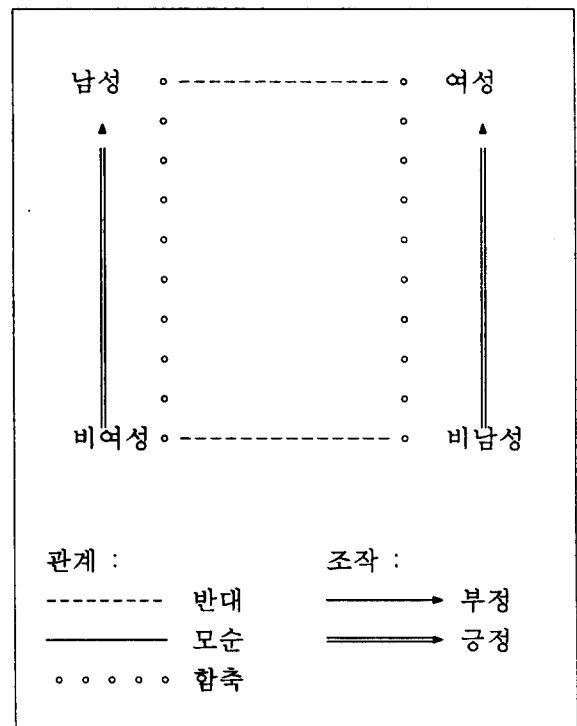
〈그림-2〉

의미를 창조하는 변별성과 풍부하고 복잡한 작품을 나타내는 텍스트, 몸짓 혹은 회화의 다양한 분절 사이에서 의미가 거쳐가는 연속적인 단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배열로, 이를 통해 의미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상태에서부터 풍부하고 복잡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된다. 의미의 형성 과정은 의미의 최소 분절 상태가 표현면과 결합될 때까지 분석자가 경험적으로 구축한 하나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다.

기호학은 의미 생성 행정 가운데서 두가지의 커다란 단계, 즉 기호-설화 구조(structure sémio-narrative)와 담화구조(structure discursive)를 구분한다. 담화구조는 주체가 체계가 제공하는 잠재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정돈할 때 분절된 의미가

거치는 단계들로 주체는 작품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커다란 대립항들을 고정시키고 여기에 동질성을 부여한다. 기호-설화 구조내에서는 분절된 의미의 기초가 되는 변별적 차이가 자리잡고 확립된 위치들의 변형과 변화를 가능하게 할 규칙이 적용되는 심층(niveau fondamental)과 심층에서 확립된 관계들과 변형 작용이 각각 “상태”와 “행위”를 나타내는 문(文)들로 전환되고 이 전환된 문들이 결합하고 연계하는 표층의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

기호사각형은 심층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 범주,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 자질들이 유지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호 사각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호학은 언어내에서 작용하는 두가지 유형의 대립 관계, 즉 결성 관계와 질적 관계, 달리 말하면 모순과 반대를 인식한 구조언어학의 지식을 이용한다. 기호 사각형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주11)}



〈그림 3〉

기호의 사각형은 랑그 혹은 하나의 의미체계 내에는 차별만이 존재한다는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요청에 잘 부합하며, 하나의 담화가 실현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2.2 의상에 있어서의 인체 부재(absence)의 작품 사례 분석

역사적으로 의복은 단순히 심리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고, 규범적으로 도상적으로, 그리고 계층과 사회적 지위의 표상으로 작용해 왔다. 인체의 단순한 부속물로서의 의복의 상징 체계는 20세기에 이르러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일상 생활 속의 의상에 있어서도 Anti-fashion 운동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며 단순히 남과 다른 차림이라는 개성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 기성세대의 사고 방식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의상의 형태나 입는 방식까지 부정하고 “입는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하였다. 즉, 포스트모던 방식의 물질문화는 다양한 기호체계를 함의하고 있으며 새로운 언어와 의미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상에 있어서도 의미의 표현과 전달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였다.

조형예술에서 의상은 빼놓을 수 없는 표현 매체로, 과거에는 회화나 조각같은 구상적인 예술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자주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조형예술에 나타난 의상은 과거의 회화나 조각 작품에서 보여지던 부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의 의상이 아니라, 의상 자체가 주된 표현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상을 그들의 예술 활동의 매개체로 차용하거나 담론의 텍스트로서 의미전달 체계로 사용하는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상을 조작, 변형하거나 여러 가지 설치의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들 예술가들은 옷과 옷입는 행위의 의미를 다루는 일은 물론 옷의 실용성을 포괄하는 말인 옷의 제반 현실성을 도외시할 수 있었다. 옷의 의미를 다루는 것은 옷의 실체, 즉 옷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옷을 <기호, symbol>로서 다루는 것이다. 기호로서 옷을 다룰때 비로소 기존의 실체로서의 옷개념을 발전시키고 전복시킬 수 있다. 요컨대 옷이 가장 옷스럽지 못할때에야 우리는 옷의 <의미>를 새삼스레 느끼게 될 것이다.^{주12)}

본장에서는 Beverly Semmes의 “watercoat 1991”과 Ruth Scheuing의 “13명의 남자 혹은 피네로페(Penelope) II 1989”,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을 기호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의상 예술에서의 옷의 의미와 의상에 있어서 인체 부재의 의미를 각 작품속의 시각적 자질들을 표현면과 내용면으로 나누어 고찰 분석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였다.

(1) Beverly Semmes의 watercoat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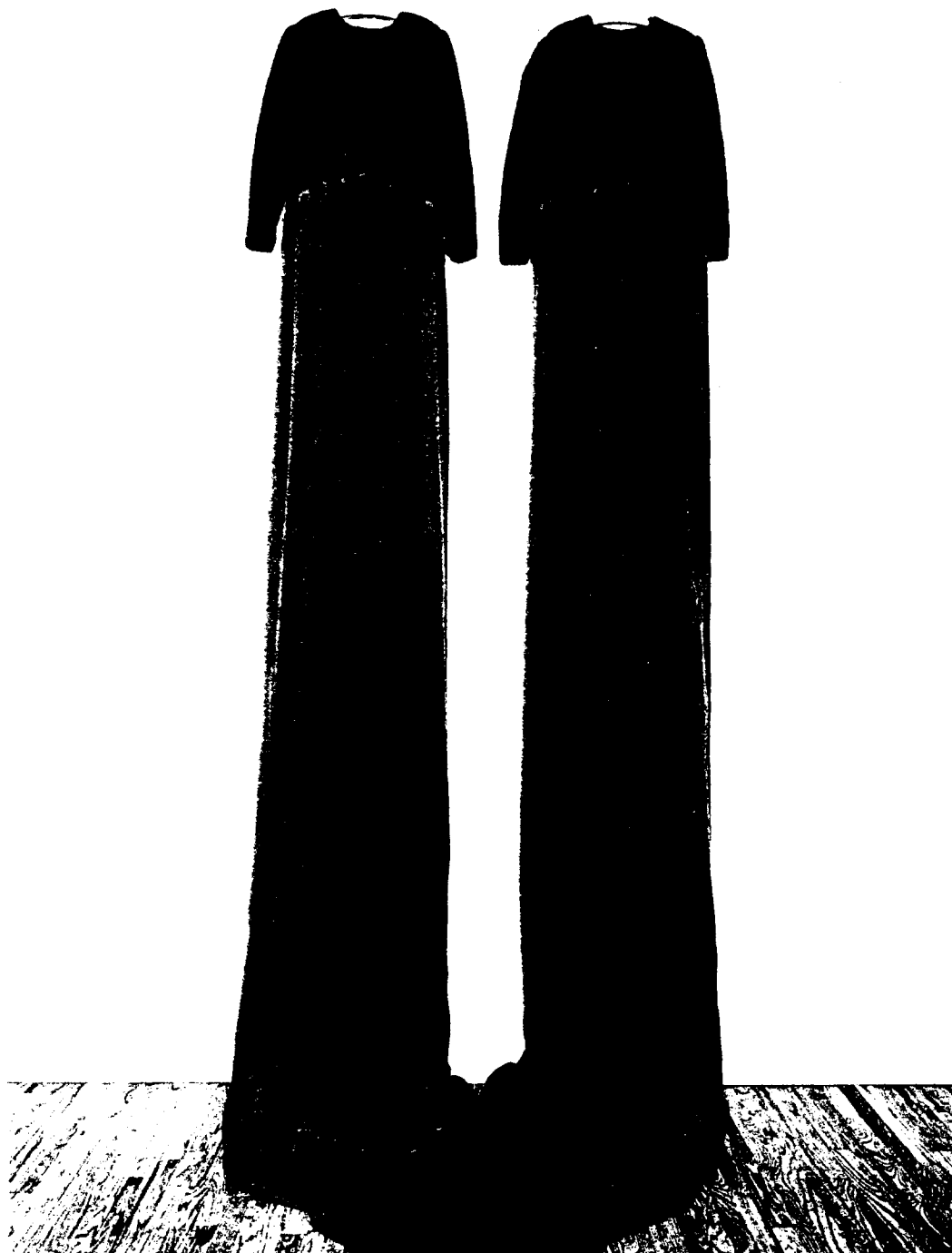


그림 4

watercoat 1991 Beverly Semmes.

옷감, 나무, 금속옷걸이.

watercoat는 풍경에 대한 것이다.

- 두사람이 물이되는 폭포.

이것은 상반된 내면의 소리에 관한 것이다 ;

한 사람의 개성이 두개의 머리와 몸통사이에서 나뉘었다.

Beverly Semmes의 watercoat는 의상이 시각적 조형언어로서 예술에 차용된 한 예로, 시각적으로는 검정과 파랑의 대조 속에서 두개의 같은 형태의 옷이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려 있는 형태로 두개의 머리가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이 이미지는 의상이 가지는 고유의 상징적 체계로서가 아닌 기호 - 상징체계로서의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이 이미지에서 작가는 (인체의) 존재/있음 (presence)대 부재/없음(absence)의 대조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대립의 의미를 내포한 옷의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면의 감각적 요소와 내용면에서의 관념적인 요소가 어떻게 일치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고찰하여 분석하였다.

a. watercoat의 표현면 분석

존재/있음 대 부재/없음의 대조를 구성하는 시각적 자질들은 그 구성과 역할에 따라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 나무와 금속으로 구성된 옷걸이
- 2) 검정색의 상체 부분
- 3) 파랑색의 늘어진 하체 부분
- 4) 바닥에 놓여져 접힌 주름 부분

나무와 금속으로 구성된 옷걸이는 이 두벌의 옷의 형태를 유지시켜 벽에 “걸려” 있게 하고 있음으로서 인체의 부재를 알려 주고 있다. 반면에 “평평한” 검은 상체부분과 “늘어진” 주름의 하체 부분은 서 있지만 비어 있는 인체의 구조를 유지하며, 바닥에 “놓여 있는” 주름은 고여 정지된 모습을 하고 있다.

옷걸이는 못에 걸려 있는 금속의 곡선과 나무 부분의 수평적 선으로 “딱딱하고”, “견고하며”, 매달려 늘어진 “유연한” 옷감부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는 어깨의 “평이하면서 완만한 선”과 목선의 “둥근 곡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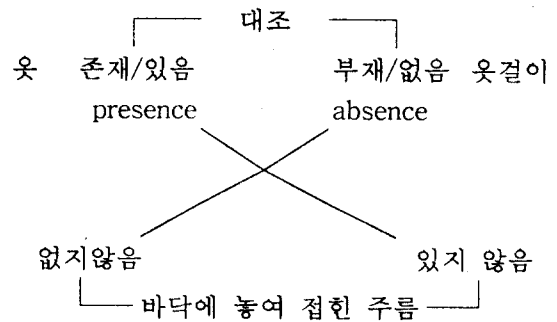
상체와 하체의 부분을 보면, 상체의 평평하고 기복이 없는 면과 하체의 길게 늘어져 주름진 부분, 상체가 인체의 비례에 적절함(in scale)에 대하여 하체는 과장(out of scale)되어

대조적으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색상에 있어서도 “수동적”이며 “정적”인 검정과 “적극적”이며 “동적”인 파랑의 대조로 없음과 있음의 양극화를 강조하고 있다.

바닥에 “놓여져 접힌” 주름부분은 수직으로 “늘어진” 주름과는 질감에 있어서의 강한 대조를 이룸과 동시에 윗 부분의 분리된 두개의 몸통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단힌”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위의 “열린” 목선과 대립을 이루고 있다.

watercoat를 이루고 있는 네개의 면들과 조형적 자질들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존재와 부재의 실현을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항은 하나의 항에 하나의 면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지어져 표현면을 구축하고 있다.

존재/있음 대 부재/없음의 논리적 분절을 다음과 같은 기호 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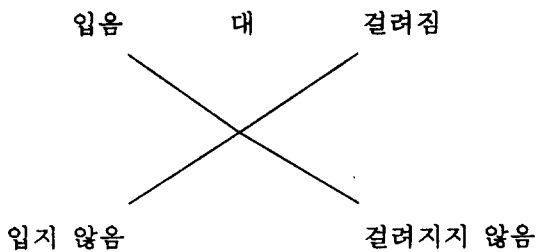
네개의 면들이 대조를 이루는 위상적인 관계를 “늘어져 있는” 대 “걸려 있는”으로 대립시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늘어져 있는	대	걸려있는
놓여져 접힌 주름		늘어진 주름
유연한		딱딱한
옷감		나무와 금속
위		아래
평평한		주름진
수평적인 선		수직적인 선
적극적		수동적
동적		정적
분리된		연결된
열린		단힌

b. watercoat의 내용면 분석

이미지의 내용면의 분석은 대상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범주와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 자질들이 유지하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watercoat는 표현면에 속한 두개의 단위 즉, 옷과 옷걸이를 통해 의미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옷은 인체가 입을을, 옷걸이는 벽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즉 인체의 존재/있음과 부재/없음의 범주로 이미지의 주제적 계층(niveau thematique)을 분절한다.



여기에서 피발화자(감상자)는 기호의 활동을 통해 발화자(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존재/부재, 긍정적/부정적, 적극적/소극적, 능동적/수동적, 동적/정적의 추상적인 구조의 대조로 환원할 수 있다. 입을과 걸려짐 ; 옷의 상징체계이며 사회적 의미인 입을 의미 구조는 입혀지지 않고 걸려짐으로서 반전됨과 동시에 능동적/수동적 즉, 남성/여성의 대립구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걸려짐, 즉 인체의 부재로 피발화자를 위한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2) Ruth Scheuing의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Penelope) II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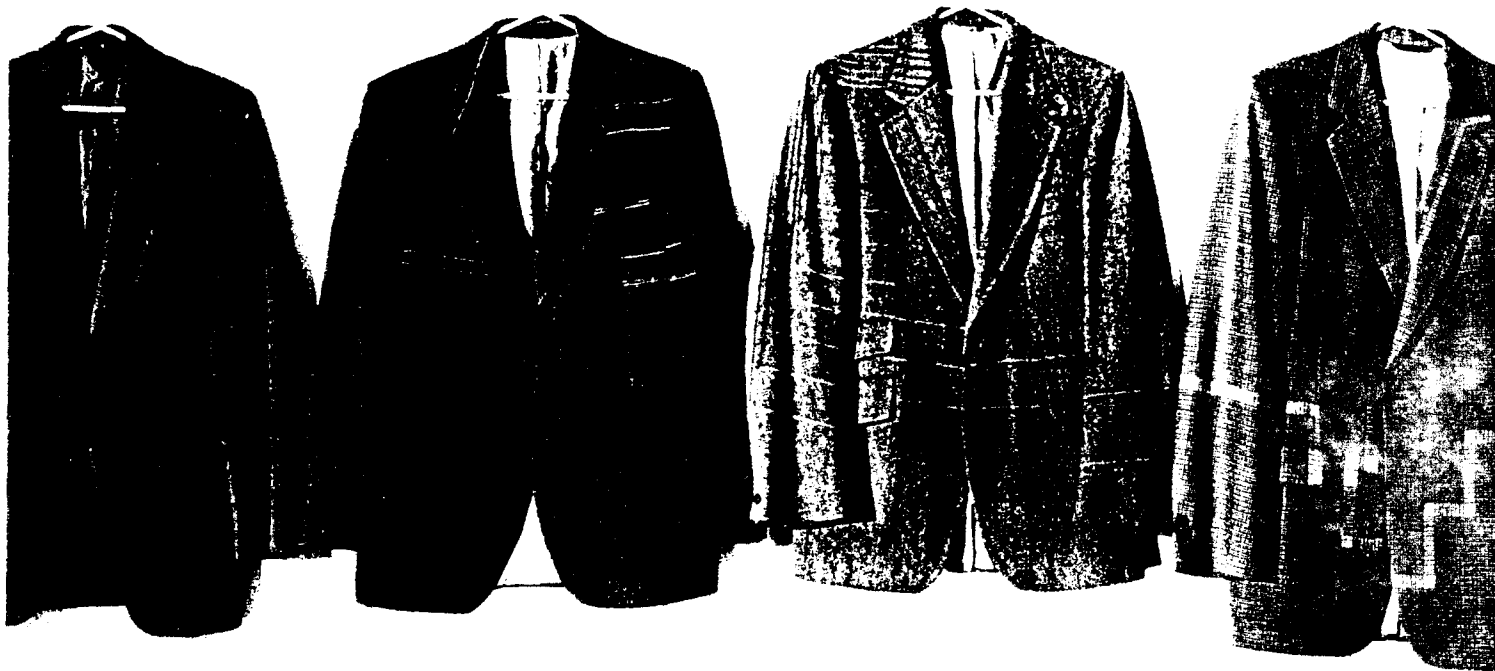


그림5.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 II, 1989(부분)
 설치, 13명의 남자상의, 플라스틱 옷걸이, 금속고리

Ruth Scheuing은 옷을 구조적인 사회 공간 내에서 의사전달의 약호화된 체계로 보고, 13벌의 남성용 재킷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사회적인” 대 “사적인”의 의미로 환원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남성용 자켓 13벌을 플라스틱 옷걸이에 걸어 나열하는 단순한 설치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작가는 단순한 반복을 통해 옷의 다차원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a.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II의 표현면 분석

이 작품의 시각적 자질들의 구성과 역할은

1. 평면의 벽면과 질감과 무늬가 있는 옷감.
2. 플라스틱 옷걸이와 울 재킷

3. 걸감과 안감

4. 가로줄 무늬와 세로줄 무늬

5. 동일한 형태의 자켓 윤곽선(Silhouette)의 반복과 각기 다른 내부구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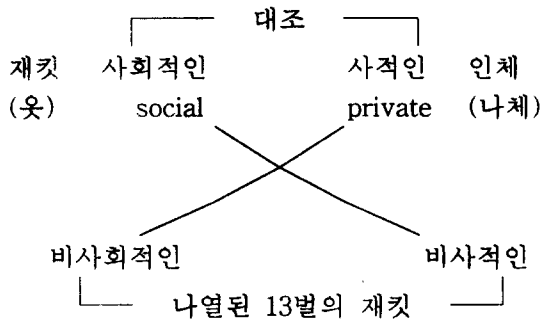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단색”인 벽면에 걸린 “부분적으로” “줄무늬가 있고” “저채도의” 색인 재킷들은 남성들의 전형적인 활동복이다.

“플라스틱”의 옷걸이는 인체를 “대신하여” “옷감”으로 만들어진 재킷을 “직접” 벽에 걸려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킷의 “가로 줄무늬”와 “세로 줄무늬”는 “적절한” 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대칭으로 “부적절함”을 나타낸다.

옷감의 독특한 “밋밋하고” “두꺼운” 질감과 “광택있고” “얇은” 안감의 질감은 “겉”과 “안”의 “표현된” / “감추어진” 속성을 드러내며, “무표정한” 재킷의 “윤곽선”은 “섬세한” “내부구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동일한” 13개 형태의 반복은 각기 “다른” 부분들의 조합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

“사회적인” 대 “사적인”의 대립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호 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5개의 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위상적인 관계를 “적절함”과 “부적절함”의 대립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적절함 (the relevant)	대	부적절함 (the irrelevant)
인체(나체)		재킷(옷)
직접		대신
표현된		감추어진
옷감		플라스틱
겉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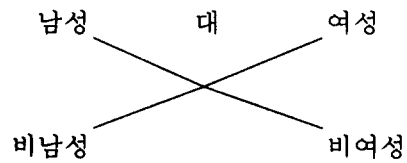
평평한	질감이 있는
단색의	줄무늬가 있는
세로 줄무늬	가로 줄무늬
밋밋한	광택있는
두꺼운	얇은
무표정한	섬세한
윤곽선	내부구조
동일한	다른

b. 내용분석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미지에서의 13명의 남자와 페네로페는 한쌍의 대립항을 이루면서 남성/여성, 나체/옷, 적절함/부적절함,

사회적/사적인의 의미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표현면에서 보여진 시각적 변별자질들은 각각 1:1 대응뿐만 아니라, 다층적 구조의 기호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재킷은 남성들의 전형적인 활동복의 대명사로 “사회적인” 공간의 “적극적인” 남성을 강조하고, 페네로페는 그리스 신화의 odysseus의 아내로 정숙한 여자를 의미하며 “사적” 공간속의 “소극적인” 여성을 상징하며 남성을 “주체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피발화자는 구체적인 기호 - 남성/여성, 나체/옷, 사회적/사적인 등 - 의 활동을 통해 적절함/부적절함, 주체적인/부수적인, 적극적/소극적, 이성적/감성적, 동적/정적, 존재/부재의 추상적인 구조의 대조로 환원시켜 발화자와의 다차원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2)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 (1996)



그림 6.
함께 입는 T셔츠 I, 1996. 박현신

폴리에스터, 기계주름

T셔츠는
옷입기 역사의 시작.
그리고
옷입기에 대한 저항의 시작
옷입기
그 경계를 넘어서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옷의 원형(原型)인 T자형의 옷을 반복하여 연결하거나, 질감의 대비를 통하여 피발화자로 하여금 다의적인 입음의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a. 함께 입는 T셔츠 I의 표현면 분석

함께 입는 T셔츠 I을 구성하는 조형적 요소들은

- 1) T셔츠들이 매달려 있는 빈 공간
- 2) 공간에 매달려 있는 T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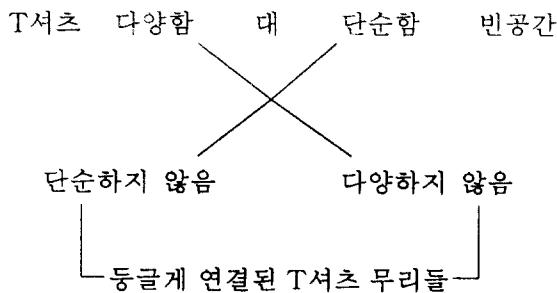
- 2-1) 평평한 백색 부분
- 2-2) 주름져 질감이 있는 백색 부분
- 2-3) 주름져 질감이 있고 색이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T셔츠들이 매달려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은 세벌 혹은 다섯벌의 T셔츠가 소매와 소매가 연결되어 분절되어 있으며, 인체의 부재하에서도 옷들이 자유롭게 연출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피발화자들에게는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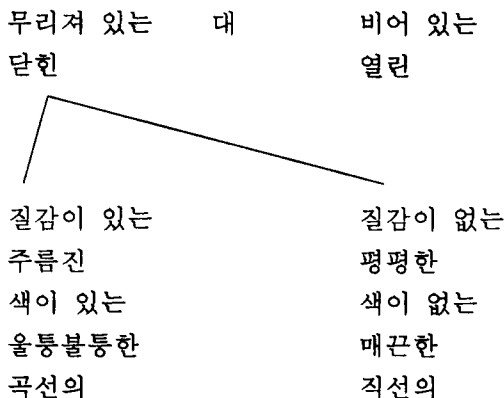
공간에 매달려 있는 T셔츠들은 다시 “평평하게” “질감이 없는” 부분과 “주름져” “질감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색이 있는” 부분과 “색이 없는” 백색 부분으로 분절된다.

셋 혹은 다섯의 옷들이 무리를 이루어 하나의 의미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개개의 옷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몸판의 딱딱하고 엄격한 직선과 목선과 질감있는 부분의 주름의 유연한 곡선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름지고 긴 “매끈한” 소매와 작은 색주름 부분으로 연결되어 “울퉁 불퉁한” 소매, 주름져 질감이 있는 부분의 위치 변화는 대립의 양극화를 강조하고 있다. “열린” 목선과 밑단선, 등글게 연결되어 “달힌” 소매는 공간을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고 있다.

함께 입는 T셔츠 I의 네개의 면들과 조형적 자질들은 다음과 같은 기호 사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양함 대 단순함의 대조의 위상적인 관계는 “무리져 있는”과 “비어 있는”으로 대립시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b. 함께 입는 T셔츠 I의 내용면 분석

함께 입는 T셔츠는 표현면의 빈 공간과 등

글게 연결되어 하나가 된 두 무리의 T셔츠를 통해 단순함과 다양함의 의미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빈 공간은 단순함을 연결된 T셔츠 무리는 하나 혹은 셋, 다섯, 그 이상의 숫자를 내포하고 있음으로서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의 다양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목에서 “함께”가 함의하고 있는 다수와 “T셔츠”가 의미하는 하나의 옷은 또 다른 대조를 나타내어 피발화자로 하여금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

함께	대	T셔츠
다수의 옷		하나의 옷
다양한 입음의 가능성		단순한 입는 방법
자유로운		제한적인
추상적		도상적

여기에서 피발화자는 빈공간과 T셔츠라는 변별적인 자질이 하나의/다수의, 다양한/단순한, 자유로운/제한적인, 추상적/도상적의 추상적인 의미구조의 대조로 환원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를 통해 발화자는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이미지는 실현된 개별 텍스트로 복잡한 의미 생성 과정의 결과이다. 조형 기호학은 의미의 생성 조건 뿐만 아니라 시각적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의도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 작품의 조형적 자질들을 고찰하고 그 모티프들을 어휘화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

의상은 단순히 입는다는 상징적인 체계로서만 아니라, 기호-상징적 체계로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다중 코드의 이미지이다. 오늘날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의상을 통해 다양한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Beverly Semmes의 "watercoat"와 Ruth Scheuing의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 II",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을 현대 예술에서 의상을 다중 코드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사례들로 선정하여, 기호학의 언어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대립 관계, 즉 모순과 반대의 기호사각형을 통하여 그 기표와 기의를 분석하였다.

Semmes의 "watercoat"에서는 옷걸이와 두개의 머리와 하나의 몸통을 가진 옷이라는 시각적 변별 자질을 통해 존재/있음 대 부재/없음의 대립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 대립구조는 긍정적/부정적, 적극적/소극적, 능동적/수동적, 동적/정적의 추상적 구조의 대조로 환원되고 상징체계이며 사회적 의미인 입혀짐의 의미구조는 입혀지지 않고 걸려짐으로 반전되어 남성/여성의 대립을 은유하고 있다.

Ruth Scheuing의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 II"에서는 13벌의 남성용 재킷을 반복하여 벽에 걸어둠으로서 남성/여성, 나체/옷, 사회적인/사적인 의미 대립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대립항은 남성/여성, 적절함/부적절함, 주체적인/부수적인의 추상적인 구조의 의미대조로 환원시켜 전통적인 남성/여성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박현신의 함께 입는 T셔츠 I은 빈공간과 무리지어진 T셔츠들의 대립에서 하나의/다수의, 단순함/다양함, 제한적인/자유로운, 도상적인/추상적인 의미구조를 구축하여 옷입는 방법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두 작품의 분석에서 의상은 단순히 심리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상징체계로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 혹은 착용자들에게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혹은 다양한 입음의 가능성을 가진 상상의 세계를 제시하여 피발화자의 개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주

- 주1. 김형암, 안티패션의 자리, 이다, 창간호 문학과 지성사, p.251, 1996.
- 주2. Felshin N. "Empty Dress", Independent Curators Incorporated, p.59, 1993.
- 주3. 전계서, p.54.
- 주4. "박현신 의상 설치전" 전시도록, 1996.
- 주5. 장마리 플로슈, 박인철 옮김, 조형기호학, 한길사, p.4. 1994.
- 주6.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p.12, 1996.
- 주7. 소두영, 기호학, 인간사랑, p.20.
- 주8. 장마리 플로슈, 전계서, p.17.
- 주9. 플로슈, 전계서, pp.49-50.
- 주10. 플로슈, 전계서, pp.27-31.
- 주11. 플로슈, 전계서, pp.37-41.
- 주12. 김복영, <옷입기>에 대한 사유 : 반전과 전복의 기호학, 박현신의상설치전 서문, 1996.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 김형암, "안티패션의 자리" 「이다」 창간호 문학과 지성사, 1996.
- 노만브라이슨의, 김윤희, 양은희 옮김, 「기호학과 시각예술, 시각과 언어」, 1995.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박은실, "포스트 모던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과 석사학위논문, 1991.
- 박현신 의상설치전 전시도록, 1996.
- 장마리 플로슈, 박인철 옮김, 「조형기호학」, 한길사, 1994.
- Dufrenne, Mikel ; 「Maintrends in Aethetics and the Sciences of Art」,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New York. London. 1978.
- Felshin, Nina; 「The Emty Dress - Clothing as Surrogate in Recent Art -」 Independent Curators Incorporated, New York, 1993.
- Hervey, Sándor ; 「Semiotic Perspectives」,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82.